



##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 2. 비몽사몽 런던 도착

거의 다 왔다. 1시간 18분 후에 도착한다고 한다. 런던 시간 현재 오전 8시 40분, 로스앤젤레스 시간은 밤 12시 40분. 비행기 안은 다시 불이 켜졌고 커피 향과 함께 승무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잔 상태이다. 이대로 런던에 내리면 하루 종일 피곤할 터인데 대책이 없다. 밖은 아일랜드 상공. 비행기는 더블린 위를 지나 가고 있었다. 유럽의 아침이 밝아 오고 있다.

런던 히드로우 공항에 도착한 것은 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45분. 잠을 못 자서 몸이 휘청거리고 전혀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비몽사몽 상태였다. 전자여권 덕분에 입국 수속은 순식간에 끝나고 가방을 찾아서 터미널 5로 나왔다. 길게 늘어선 사람들 끝에 까만 코트를 입고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는 R이 한눈에 들어 왔다. 나를 발견한 딸은 '엄마!' 하고 외치며 달려왔다. 크리스마스에 집에 왔다가 일 때문에 연말에 런던으로 돌아왔으니 불과 2주 전에 헤어졌을 뿐인데도 우리는 마치 수십 년 만에 만난 모녀처럼 서로 끌어 안고 기뻐했다.



"엄마, 엄마! 생일 축하해! 엄마 생일날 내가 없어서 섭섭했지? 미안해, 엄마!" R은 나를 반쪽 들어 안고 키스를 퍼부으며 축하와 사과의 말을 쏟아냈다. 그리고는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 향기를 뿜어내는 커다란 꽃다발을 품에 안겨 주었다. "엄마, 오늘부터 매일 엄마 생일 축하하자, 알았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1월 내내 생일 대접을 해 주시더니 이제는 딸이 커서 똑같이 해 준다고 한다.

떠들썩한 상봉을 하고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정신이 혼미해 몸이 비틀거렸다. 왜 그러냐고 묻는 R에게 비행기에서 한잠도 못 잤다고 하니 저녁에 흑시 티를 마셨냐고 묻는다. 저녁 식사 후 마셨다고 했다. "엄마, 저녁에 영국 블랙 티 마시면 큰일 나! 나도 한 번 혼난 적이 있어." 아, 그렇구나. 승

무원이 컵에 가득 부어 주는 것이 어쩐지 아주 진한 티였다. 밀크를 듬뿍 넣어 정말 맛있었는데 그것이 문제였구나. 나는 R에게 기대어 우버를 타고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하면서 R이 사는 팜리코(Pimlico)로 갔다.

R의 플랫은 테이트 미술관 바로 뒤에 있었다. 앞에 조그만 광장이 있고 런던 어디나 그렇듯이 골목들이 작고 오밀조밀했다. 하지만 역사와 전통이 넘쳐 분위기와 이야기가 가득하다. R이 사는 플랫 건물의 이름은 윌키 하우스(Wilkie House). 건물 뒤로 돌아 입구로 간다. 그 앞에 정신병자 아저씨가 가꾼다는 정원이 있었다. 꽃 화분들과 작은 텃밭들로 이루어진 정원인데 습기가 많은 날씨 때문에 식물들이 모두 싱싱하고 예뻐다.

R은 엄마가 온다고 완벽하게 청소를 해 놓고 방마다 화병에 꽃을 가득 꽂아 두었다. 이층에 있는 플랫은 사방에 큰 창문들이 나 있어서 환하고 따뜻했다. 딸의 집을 구경하는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고생했다. 집을 대강 풀고 근처 이탈리아 델리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무엇을 먹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하지만 집에서 쉬라고 하는 R의 말에 괜찮다고 웃으며 오후 내내 따라 다녔다.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노팅 힐(Notting Hill)에 잠시 들려야 한다는 말에 거기도 따라갔다. 이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2분 정도 뿌리다가 멈추곤 했었는데 오늘은 엄청 내린다고 한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속에 길을 걷자니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사람은 어쩔 줄을 모른다. 런던에 다시 왔다는 것이 실감났다.

빗속에 볼 일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5시가 되었다. 이 때쯤에는 극도로 피곤해 기절할 듯한 상태가 되었다. 간신히 이를 닦고 '엄마, 잠지만 누워 있을게' 하곤 누웠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다.

## 새라김 헤어스튜디오

- 남자 컷 \$12<sup>UP</sup> •여자 컷 \$20<sup>UP</sup>
- 펌 + 컷 \$50<sup>UP</sup>
- 칼라+컷 \$50<sup>UP</sup>
- 칼라+헤어트리트먼트 \$60<sup>UP</sup>

좋아지는 고객의 머리결은 저희 기쁨입니다

모발 손상이 전혀 없이 뿌리 부분만 "하프 inch" 블록 실려주는

### 시크릿 하프 inch 펌

- 갈라진 가마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 볼륨있는 생머리 스타일이 가능해집니다.
- 납작한 머리형이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예약을 우선합니다) 새라김 헤어스튜디오 ☎ (714)530-5755  
8762 Garden Grove Bl. #106, Garden Grove, CA 92844(김치나라 건너편)

## 부에나 팍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www.buenaparknc.com

한국어: 562-240-3516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영어 :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 최고의 질병 치료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심각한 질병 및 감염병 예방에 대해  
꿀약국 예방접종센터에 문의 하세요.

## 건강한 약국, 꿀약국!



### 꿀약국 예방접종센터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 Shingles(대상포진)
- Flu(독감)
- Prevnar 13, Pneumovax 23(폐렴)
- Hepatitis A, Hepatitis B(간염)
- M-M-R(홍역, 볼거리, 풍진)
- Meningitis(수막염)
-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Typhoid(장티푸스)
- HPV-Human Papilloma(인간 유두종)



### 가족같은 약국, 꿀약국!

Kaiser Permanente, Rite Aid  
10년 약사 경력!



약학박사 로렌 민 / 약학박사 안젤라 권  
매니저 벤자민 유

Tel: 562.403.2332

7002 Moody St. #106, La Palma, CA 90623

Fax: 562.403.2331

Honeyrx123@gmail.com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PPO, HMO 받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환영

